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직장 배달 콘서트> 공모 심의결과

□ 일반공모형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직장 배달 콘서트> 지원사업의 일반공모형은 평일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에 근무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생활 속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모하였다.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다원예술(융복합) 등 다양한 공연 예술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468개 단체가 지원 신청하여 공연단체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추천하는 사업에 대해 토론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확산 기여도 및 홍보효과를 심의기준으로 선정하였고, 특히 직장으로 찾아가는 콘서트이므로 공연장소와 관객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적정한지를 중점 검토하였다.

최종심의 결과 연극 2개, 무용 1개, 음악 4개, 전통예술 3개, 다원예술 2개 등 총 12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참여 예술가나 작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차등 결정하였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 <직장 배달 콘서트> 심의위원 일동

□ 기획공모형

처음 시도되는 문화가 있는 날 <직장 배달 콘서트> 기획공모형은 총 14개 단체가 지원하였고 그 중 심의위원 전원의 통합심사를 통해 1개 단체를 1순위로 선정하고, 예비후보 2개 단체를 결정하였다. 1순위 선정 단체는 국립국악원, 융성위원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 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해 협의 후 확정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3 순위 순으로 협상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사업은 국립국악원의 공연 콘텐츠와 한식 콘텐츠의 융합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공지되었음에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다수였다.

심의 시 공연 프로그램에 협력할 국립국악원 산하 단체들과의 소통 능력, 한식 콘텐츠의 활용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직장인 관객들의 프로그램 참여도, 복합적인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직장 배달 콘서트>의 사업 특성 상 공간적 제약과 관람 인원의 변화 등이 예상되므로 선정 단체의 현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직장인들의 근무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한식과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수준 높고 다채로운 융합예술 향유의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 <직장 배달 콘서트> 심의위원 일동